

한국과 베트남 전통색채의 문화기호학적 비교 연구 - 두 나라여성의 전통복식 사례를 중심으로 -

Bach Ngoc Trang and Y.S. Kim,
Inha University

1. 들어가는 말

베트남과 한국은 외교관계 설립될 때부터 양국의 관계가 경제 및 사회 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다. 이는 양국의 학계 및 문화사회 연구자들에게 서로 양국의 문화에 대한 연구하도록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많은 학술회를 열렸으며,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은 베트남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에는 각각의 전통문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그러나 비교 문화론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특히 전통색채에 대한 비교 연구가 대체로 그런 편이다. 전통색채는 해당 민족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문화기호의 일종이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 전통색채로서 오방색이 존재한다. 오방색은 오방정색이라고도 하며, 황, 청, 백, 적, 흑의 5가지 색을 말한다. 5색은 동양의 고유사상인 '음양오행설'과 관계가 있다. 이 음양오행설은 음과 양의 기운이 생겨나 하늘과 땅이 되고 다시 음양의 두 기운이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오행을 생성하였다는 사상을 기초로 한다. 오행에는 오색이 따르고 방위가 따르는데, 중앙과 사방을 기본으로 삼아 황(黃)은 중앙, 청(靑)은 동, 백(白)은 서, 적(赤)은 남, 흑(黑)은 북을 뜻한다."

한국에 전통 색채로써 오방색이 존재하듯이 베트남에서도 오방색이 있다. 베트남의 학자들도 한국의 오방색 연구에서와 같이 절의 건축과 절에서 쓴 페인트의 색을 중심으로 개척하였다. 뿐만 아니라 의상 및 음식의 색을 통해서 베트남 사람의 관념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의

전통색채에 대한 문화 기호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비교 문화론적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기호학의 분석도구 (FGI, 현지조사, 의미자질 추출, 문화기호 맵핑, 문화 의미 포지셔닝 등)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 전통색깔의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기로 한다. 나아가 전통 색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을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코드(culture code)'를 탐색할 것이다.

2, 문화를 보는 관점 그리고 문화 기호학

1) 문화를 보는 관점

먼저 문화를 보는 관점을 언급하기 앞서 ‘문화’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다르게 말하면 "문화"라는 것이 자연과 사회에 대응하는 과정에 인간이 창조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문화란 인간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행해지는 생활의 지혜와 양식들이 축적된 고유한 산물이며, 이것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져 공유하고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어떤 유형, 무형의 가치들이다.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느 한 문화권 안에서 문화적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문화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에서부터는 우리가 문화의 기본적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트란옥티엠 교수님은 저서 "문화는 먼저 총체성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문화권 안에서 존재되는 문화 현상들이 서로 상호적용된다". 문화학은 이론과학으로써 다른 과학에서 공급해주는 자료를 기반으로 특정과 형성과 발전 규정을 발견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상처럼 문화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 임무가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서 한 민족이 어디서 사는 지, 어떻게 먹는지 알게 되면 그 민족이 어떻게 입은 지, 생각한 지, 대응한지 알다고 말을 할 수 있다.

또는 문화를 볼 때에는 상대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화마다 차이점이 존재한다. “어떤 문화의 요소이건 간에 다 그러한 요소와 행동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문화의 우열을 정한다는 것을 잘 못 된 일이다.” 예를 들어, 예절바른 공손 한 앉음새는 문화마다 다르다. 한국 여자는 두 다리를 수직 교차시키는 ㄴ자의 앉음새가 정좌이지만 베트남 여자는 두 다리를 한 쪽에 정리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여자의 앉음새에 대해서 험뜬 몸가짐 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트남여자의 자세는 불편한 모양이다. 이렇게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문화를 바라보면 편견을 갖기 쉽다.

“인간이라면 이러저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공통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슬픔, 기쁨, 노여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마음의 표현은 다를지언정 그런 내용을 구비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공통적인 특징인 제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낸 문화도 보편성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문화를 볼 때 이 보편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한다.” 예를 들어 의복이다. 베트남 사람들이 Ao Dai 있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기모노 있고 한국 사람들이 한복이 있다. 이름과 형성과 발전 역사가 나라마다 다르지만 똑같은 직능을 가지고 있다. 그 직능이 사람의 몸을 보호뿐만 아니라 사람이 예뻐지게 만드는 것이다. 베트남,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옷을 입어야 한다. 그 것이 보편성이라고 한다.

문화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화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 한 가지만 언급하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비교연구이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밥을 먹는 문화가 너무 익숙해서 어떤 것이 특징이라고 꼭 집어 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자. 우리는 밥그릇을 손에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이 그렇게 먹지 않다. 한국 사람은 밥그릇을 상 위에 얹어놓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다. 또, 동남아시아나 남부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직접 밥을 집어 먹는다. 이렇게 다른 사회의 문화와 비교해 보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문화의 특징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비교문화방법은 자기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똑같은 옷인데 왜 한국에선 한복이고 베트남에선 Ao dai 인가? 또는 어떤 문화 차이점에서 한국 사람이 한복에 여러 색깔이 같이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베트남 사람이

전통 Ao dai에 주로 단색만 만들까? 아시다시피,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지만 발전한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의 문화권에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Indo-European문화, 동남아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다. 지금까지 많은 베트남 문화 학자들은 베트남이 동남아나라인데 동남아 문화의 특정보다 동북아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원인이 수많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지리측면에서 보면 문화권들이 가까우면 접근부터 교류까지 할 수가 있고 그 교류과정에서 이 문화권의 요소가 다른 문화권에 잠입하게 된다. 문화접변은 문화권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접촉한 기회가 있는 경우에서 생길 수 있다. 또는 문화권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전에서는 만나본적이 없더라도 비슷한 자연과 사회 환경이 있으면 두 문화권이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상위에 언급하는 뜻으로 베트남 문화의 정체성을 명백하기 위한 베트남문화가 구역문화와 비슷한 점이 무엇 인지, 차이점이 무엇 인 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복식을 통해서 베트남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보자.

2) 문화 기호학:

소쉬르가 (일반 언어학 강의) 33쪽에서 "사회적 삶 속에서 기호의 삶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인 기호학"의 탄생을 예고한 이후 기호학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소쉬르가 세상의 기호를 논리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제안한 기호학은 20세기 유럽 인문과학의 이론적 고찰과 방법론 구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각인시킨 인문학의 혁명인 사건이었다.

150년 전에 태어난 소쉬르가 언어학적 관점에서 랑그를 기호시스템으로 규정하며 말의 외적인 형식 기표 (signifiant)와 말의 의미인 기의(signifie')의 결합으로 기호가 생성된다. 다르게 말하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창출되는 기호는 기표와 기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기표는 지각 차원에서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포착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의미작용 (signification)을 가능하게 한다. 기의는 인자 차원에서 기표의 의해 감추어진 의미작용의 내용이다. 바르트까지 소쉬르의 기호이론을 대중화 시켰다. 바르트는 명시적 의미 (denotation) 차원에서 기표와 기의의 결합인 1차적 의미작용(significatation)과 함축적 의미(connotation) 차원에서 기표와 기의의 2차적 의미작용의 결과를 근거로 신화적 의미를 해독하였다.

예를 들자면 바르트는 이탈리아 식료품회사 “판자니”의 광고 포스터를 활용하여 기표와 기의를 설명했다. 광고 포스터의 첫 번째 기호의 기표는 “판자니” 이고 기의는 이탈리아 식료품 회사의 네이밍을 의미한다. 두 번째 기호의 기표는 토마토-양파-파스타의 색깔 기호인 노랑-초록-빨강이고, 기표의 기의는 이탈리아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호학은 테스트의 분석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호학은 테스트의 분석 가운데서도 “구조분석”에 가장 큰 관심을 쏟는다. 구조 분석은 기호체계의 구성의 요소 (에컨대 텍스트나 사회 문학적 실천)와 그 요소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 (대립, 상관관계, 논리관계 등)를 파악하고자 한다.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의미한 차이를 비교하는 동시에 어떤 결합이 가능하고 어떤 결합이 불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Culler 1975, 14).

소쉬르는 의미가 기표들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이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통합적(syntagmatic) 차이 (위치관계)고 다른 하나는 계열적(paradigmatic)차이 (대체관계)다. 소쉬르는 본래 후자를 “연상관계”라고 불렀으나 (Saussure 1983,121), 오늘날에는 야콥슨을 따라 “계열적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구조주의 기호학 분석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두 차원은 “축”으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가로축은 “통합축”(syntagmatic axis) 세로축은 “계열축”(paradigmatic axis)이다. 통합적 차원은 “이것 - 그리고 - 이것 - 그리고 - 이것”처럼 “결합”(combination)하는 것이다. 반대로 계열적 차원은 “이것 - 아니면 - 이것 - 아니면 - 이것”처럼 “선택”(selection)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림 속에서 전체 하 문장이 “그 남자는 울었다” 결합하는 것이다. 그림 속에서 “울었다” 대신에 “죽었다”나 “노랬다”를 선택하는 경우다.

더 쉽게 이해하도록 의복에 대한 다른 예를 들다. 어떤 텍스트나 문화적 실천도 통합축과 계열축 모두를 기지고 있다. 롤랑 바르트 (1967)는 “의복 시스템”으로 계열적 요소와 통합적 요소를 설명했다. 계열적 요소는 신체의 같은 부분에 동시에 입거나 신을 수 없는 것(모자-바지-신발 등)을 의미한다. 통합적 차원은 모자부터 신발까지 모든 요소들은 빠짐없이 갖추어 입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정장을 입는

다면 통합체는 모든 요소들은 바지 수가 없는 것들 넥타이, 와이셔츠, 자켓, 양복바지, 양발, 구두들이다. 하나만 빠지면 정장을 입는다고 말할 수 없다. 계열체는 넥타이, 와이셔츠, 자켓, 양복바지, 양발, 구두의 하나씩이 계열축이다. 빨강 넥타이를 원하지 않으며 다른 색으로 바뀌도 전체 정장과 상관없는 것이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한번 색깔이 바뀌면 새로운 계열이 생겼다. 다음과 그림을 알아보겠다.

3,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색채

전통색채와 음양오행설의 관계성: 동방에서는 옛날부터 “음양” 설이 존재해 왔다. 동방 사람들이 음양설을 통한 우주나 만물의 형성 근본과 발전과정을 설명해왔다. 많은 연구자들이 우주나 인간의 모든 형상 음.양 두 원리의 소장으로 설명하는 음양설과 이 영향을 받아 만물의 생성소멸을 목.화.토.금.수의 변전으로 설명하는 오행설을 함께 묶어 이르는 말이라고 했다. 음양이란 사물의 현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기호에다 모든 사물을 포괄.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본질을 양면으로 관찰하여 상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이원론적 기호라고도 할 수 있다. 오행은 우주만물을 형성하는 원기, 곧 목.화.토.금.수를 이르는 말인데, 이는 오행의 상생.상극의 관계를 가지고 사물간의 상호관계 및 그 생성의 변화를 해석하기 위해 방법론적 수단으로 응용한 것이다.

동양에는 예로부터 오행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색채개념인 5색의 전설이 전해온다. 이 오색은 동양의 우주론적인 체계인 오행설과 결합하여 각기 특정한 방향과 신성한 동물과 연결시킴으로써 하나의 색채관념을 형성하게 되어 회화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과 “오행의 응용 사례”표를 보면 음양오행설과 오방색의 관계성을 더 뚜렷하게 보인다.

(표): “오행의 응용 사례”

위와 같은 표는 말로 설명하면 먼저 청색은 동쪽·봄·간장·신맛·기쁨·인을 상징하며, 백색은 서쪽·가을·폐장과 코·매운맛·분노·의를 상징한다. 적색은 남쪽·여름·심장·쓴맛·즐거움·예를, 흑색은 북쪽·겨울·신장·짠맛·슬픔·지를, 황색은 중앙·비장·단맛·욕심·신 등을 상징한다.

4, 한국과 베트남의 전통 의복에 대해서 간략 소개:

문화 형성하는 의, 식, 주에 대한 기본적 고찰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는 의생활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복식"이다. 이 분야에 모두 적용된 색채의 경우 한 국가 또는 문화권의 사상, 이념, 의식, 제도, 관습 등이 기호화되어 나타난 요소이기 때문에 각 시대별 특성이나 지역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의상은 물리적 생활의 3가지의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의-식-주들은 인간의 제일 먼저 문화적 산물이었다. 의상이 역사과정 발전하는 것에 따라 변동한다. 그리고 의상은 나라마다의 문화의 독특한 차이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의상을 보면 그 나라의 영혼을 읽을 수 있다.

1) 베트남 전통 의복: 아오자이

기록한 서류가 없음으로써 원본의 아오자이가 언제부터 다타내고 어떤 모양인지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베트남사람이 입은 가장 오래된 의복은 수천년부터 Ngoc Lu북의 면에 조각된 사람이 입은 의복이다. 베트남 사람의 의복 방식은 많은 시대를 걸쳐서 2가지의 자연환경의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요소들은 열대지역의 더운 기후와 그리고 벼를 심는 일처럼 농사활동이다.



여성들이 아래에 입은 것은 대표적인 의복이 치마이다. “Hung Vuong 시대부터 여성들이 치마를 입었다”. 이 입은 방식이 20세기까지 보류해왔다. 치마는 더운 기후에 효과적 대응할 수가 있음뿐만 아니라 농사활동에 부합한다. 위에 입힌 것은 이엠 (YEM)이다. 이엠이 베트남 여성의 특수한 의복이다. 여성들이 이엠을 직접 만들고 염색한 것이다. 일상생활 때에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축제에 갈 때 긴 옷을 입었다. 그 긴 옷이 첨에 아오뜨탄 (Ao tu than)이라고 하고 20세기에 서양과 문화 교류활동을 통해서 전통 긴 옷이 현대 아오자이 (Ao dai)로 개발했다. 아오뜨탄이 4조각으로 만들어 진 옷이다. 뒤쪽의 2조각이 등의 제일

가운데에 결합되어 앞쪽의 2조각이 그냥 풀려두고 안 매도되고 묶여도 된다. 옛날 아오뜨탄을 입을 때 맨 속에 이엠을 입고 그담에 짧은 옷도 입고 다른 색 없애버리고 짧은 옷을 입고 바깥에 긴 아오뜨탄을 입었다. 그런데 현대 아오자이는 이엠과 2,3층이 아오뜨탄의 앞쪽의 2조각도 결합해서 칼라를 창조하고 양쪽의 허리에 조금 열린 상태 둔다. 이런 아오자이는 신체에 딱 맞게 만들고 하고 앞뒤 조각을 자연스럽게 날게 한다. 이 창조는 고대와 현대의 조화이기 때문에 그때의 여성한테서 인기가 많았다.

2) 한국 전통 의복: 한복

한복은 한국의 전통성과 조상의 얼이 담겨 있는 민족의상이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민족복, 민속복의 형성은 다른 민족들 복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통해 기본적인 형태를 계승시켜 왔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후, 풍토, 생활양식 등에 알맞게 정착된 한 복을 보존하고 올바르게 전승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한복을 구성된 부분은 저고리, 바지와 치마들이다. 저고리 는 상체의 옷이고 치마는 하체의 옷이며 바지는 하체의 속에 입힌다. 한복에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면 한복의 미를 볼 수 있다. 첫째로, 곧은 선과 은은히 흐르는 곡선으로 이루지는 너그럽고 유연한 선의 흐름이다. 한복의 선의 흐름은 한옥집 추녀와 같은 저고리의 배래선과 넘실거리는 물결과 같은 도련의 곡선, 그리고 칼날같이 예리한 동정의 직선과 섬과 도련의 만남에서 생긴 독특한 섬코의 조화는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또한 풍성한 치마의 주름 위에 외곡선인 도련이 놓여짐은 끝없는 여운을 남기게 한다. 그리고 치맛자락을 튕겨나오는 하얀 쿓날의 버선 모습은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우아한 가운데에도 이지적인 여성미의 매력을 풍기게 한다.

둘째는 단일민족의 청렴결백함과 전통성을 고수한 배색은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색채의 조화이다.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 관계를 보면 노랑 저고리에 다홍치마, 노랑 저고리에 남치마 등 음과 양, 남과 여, 생과 성장의 관계 등으로 인생의 근본원리를 바탕으로 배색한 것이다. 또한 연두색, 옥색, 분홍색 저고리 등은 전통적인 색감으로 온화하고 화사한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

5, 문화기호학 비교

1) **계열체로 분석:** 아래에는 색채의 계열체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황색

황은 오행 가운데 토로 우주의 중심에 해당하고 오방색의 중심으로 가장 고귀한 색으로 인식되어 임금만이 황색 옷을 입을 수가 있었다. 금색으로 모든 색의 근원으로 숭상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천자의 색으로 여길 정도로 가장 존귀한 색이었다. 아시다시피 중국 고대로부터 황제의 복색으로 숭상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신라 신덕왕 이래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황색이 왕의 복색으로 규정되어” 일반인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다.

베트남과 한국에서는 황색이 적색과 같은 계열로 분류되는 듯 적색 계열의 색채와 같은 용도, 즉 주로 귀신을 쫓거나 병을 방지하는데 많이 쓰였음을 볼 수 있다. 황색의 사용에는 오행상로 신성한 색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시각적으로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이 관점에서 한-베 양국이 공통점이 있다.

나. 적색

적은 황색 다음으로 중요시적은 오행 가운데 화에 상응하며 만물이 무성한 남쪽이며 태양, 불, 피 등과 같이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정, 적극성을 뜻하며 가장 강력한 벽사의 빛깔로 씌어졌다. 적색은 양기가 왕성하고 만물이 무성하여 생명을 낳고 지키는 힘으로 상징되어 민속에 많이 씌어진 색이다. 또한 토속신앙의 주술적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 색인데 귀신을 쫓는 데 주로 이용하였다.

한국에는 적은 황색 다음으로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서는 적색을 왕의 복색으로 정하였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적색을 포함한 붉은 색 계열은 권력과 부를 겸비한 상류 계층의 상징색처럼 되어 있었다.”

베트남에서 복식의 자세한 색채체계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 적색이 대부분 결혼식 때나 설날 때나 깊은 소식이 있을 때에만 쓰인 색으로 알고 있다. 왕의 복색으로 정한 기록을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베트남의 불교절의 건축물에서 적색은 장엄을 표현 색으로 많이 볼 수 있다.

다. 청색

청은 오행 가운데 목으로써 동쪽에 해당하고 만물이 생성하는 봄의 색으로 창조, 생명, 신생을 상징하며,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으로 사용되었다. 예로부터 청색은 초목의 빛깔로서 사람과 풍성함을 의미한다. 혼례 때 청, 홍 색실을 늘어놓는 것이나 신부복을 청홍색으로 만들어 입힌다, 사주보를 청홍색으로 만든다 하는 데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청색은 주로 쪽 (여귀와 식물)에서 색을 얻었다.

한국에 “청색은 일반인에게도 허용되었던 만큼 조관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옷옷으로 입혀졌던 도포의 길복이 청색이기도 하였다. 여자의 경우에도 결혼한 부인들은 남치마를 즐겨 입었으며, 특히 남편이 살아 있으면 아무리 늙어도 남치마를 입는 것이 풍습으로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베트남에 "Nguyen Van Huyen toan tap"에서 “학생과 평민들이 설날 때에는 하늘색 (남색)옷을 주로 입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베사람의 관념에도 청색은 사람과 풍성함을 이미하다고 하기 때문에 봄날들에 청색 옷을 입혔다.

라. 흑색

음양오행설으로 흑은 오행 가운데 수에 상응하며 북쪽이고 인간의 지혜를 관장한다.

“한복에서 흑색만을 사용한 예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백색의 바탕에 흑색으로 선을 두르거나 부분적인 효과로 사용하는 등의 흑백 조화가 주종을 이룬다.” 흑색은 음의 색으로 쓰여서 일찍부터 백색과 함께 금지되기도 하였으며 계절로는 겨울을 나타낸다. 이것은 흑색이 다음(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소생을 상징함과 동시에 만물의 흐름과 변화를 뜻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베트남 역사에 찾아보니 비엣 사람들이 평일에 짙은 검은 의복을 주로 입었다. 검은 의복이 농업생활에 제일 부합한 색이라고 인정되었다. 위생면으로 본 특색이 너무 깨끗한 색이다. 또한 흑색이 흙의 색과 가까워서 농부들이 자연과 친근한 느낌을 느껴진다. 그 외에 사람의 관념에 두 번째의 죽음 색이라고 한다. 서쪽이 귀신들 사는 곳이며 북쪽이 죽은 사람의 곳이라고 생각한다.

마. 백색

음양오행설으로 백은 오행 가운데 금으로 서쪽에 해당한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백색은 수천년간 고수해 온 한국 민족의 백의에 대한 애착이나 지속성은 심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본다. 한국인이 백색은 결백과 진실, 삶, 순결 등을 뜻하며 한국민족이 흰 옷을 즐겨 입는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은 고대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태양숭배사상과 경천사상에 따라 예부터 백색을 신성한 색으로 다루었는데, 이 흰색은 물감을 들인 색인 아닌 무색, 즉 있는 그대로의 흰색을 말하는 것으로 무색 그 자체가 자연을 의미한다.

거꾸로 베트남 사람에게는 백은 오행 가운데 금으로 서쪽에 해당하는 데 죽음과 안 좋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베트남 사람이 백색을 주로 장례식에서 사용한다. 베트남에서는 서쪽과 북쪽보다 남쪽과 동쪽을 더 존중하니 서쪽에서 온 것들 서쪽의 상징하는 것이 다 안 좋다고 여긴다. 그런데 현대까지 흰색 오아자이는 여학생의 주요 의복이 되어있다. 이때에는 흰색은 학생의 순결, 진실, 순수함의 상징이 되었다.

소결론: 시간이 걸쳐서 색채에 관한 관념이 변할 수 있으니 색채를 사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데 전통적인 색이 원본의 의미를 오늘까지 가지고 온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지리적으로 완전히 다른데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 중에 중국문명과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서 차이점의 외에 공통점을 많이 볼 수 있다. 위에 색채의 계열체로 (한 색깔씩 분석하는 것) 분석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표로 다시 요약하겠다.

색채의 의미

색	한국	베트남
황	- 가장 존귀한 색임 - 권력, 장엄을 표현한 색임	- 가장 존귀한 색임 - 권력, 장엄을 표현 한 색임
적	- 생성, 창조, 정열, 애정, 적극성을 뜻함.	- 깊음을 표현한 색임
청	- 자람과 풍성함을 의미	- 자람과 풍성함을 의미
흑	- 소생을 상징함	- 깨끗함을 표현 - 자연과 친근한 색임
백	- 진실, 삶, 순결 등을 뜻함 - 한국의 상징의 색임	- 죽음과 안 좋은 것을 표현함 - 순결, 순수함을 의미

2) 통합체로 분석:

* 한복: 한복이 단색복도 있고 배색된 복도 있으니 다양한 종류가 있다. 또한 한복구성학에는 배색체계가 있다. 대비 배색(흑백조화, 배색조화)도 있고, 유사 배색(공통적인 성격과 갖고 있는 색끼리의 조화)도 있으며 다색 배색도 있다. 보통 한국인의 생활에 배색된 한복을 많이 입힌다. 단색옷보다 두 배색된 옷이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색을 사용했을 때 그 색이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아오자이: 오아자이의 역사에 관한 확실한 기록이 없지만 거의 단색 옷만 만들어 내다고 알고 있다. 다음 표으로 한복과 오아자이를 사용할 때와 의복에서 나타난 색채를 알아보겠다.

분류	베트남	한국
1, 일반복	- 농촌: 갈(흑)색 사용하고 도시에 사는 여성들이 흰색을 사용함. - 좋아하는 색깔들이 음성적 색들임. + 북쪽: 갈색(흑의 색) + 남부: 흑색을 + Hue(중부): 보라색을 좋아한다.	- 다홍색 치마에 노랑색 저고리를 입다 - 두드러짐을 표현한 것으로 백과 흑의 조화된 옷을 입다. 한국인의 머리와 피부의 색채를 상징하여 잘 어울림. - 녹의홍상, 황의홍상, 녹의청상
2, 예복	- 마을 축제 때: 화려하고 밝은 색 옷을 사용함. 닭털의 노란 색, 연꽃의 분홍색...등 - 결혼식 때: 빨간 색을 사용함. 20세기의 1930이후: 신부들이 상체는 용을 수놓은 빨강이나 노랑 옷을 주로 입고 하체에는 흰색 바지 입고 발에서 빨간 구두를 신었다. - 장례식 때: 회색	- 남색치마에 노랑색.미색,옥색 등의 저고리를 입다. - 장례식 때 흰색을 사용하는데 안 좋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님.

위에 색채기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소결론을 낼 수 있다:

한국에는 주요 다색 옷을 입었다. 한복이 생활 맥락에 따라 복장의 스타일과 색깔이 단색 옷도 입었고 화려한 색도 입는데 주요 배색된 한복을 많이 사용한다.

또한 색채면으로 본 특색이 한민족을 일컬어 “백색민족” 이라고 했듯이 한국 민족은 예부터 백색이 좋은 인연을 가져온다는 뜻에서 백색을 숭상하게 되었고 흰 옷을 즐겨 입어왔다. 여기에는 단일 민족의 청렴, 결백함과 긍정적이고 순수한 성격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색깔이 있는 옷이라 해도 백색의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옥색, 회색 등과 같이 깨끗하고 밝은 분위기의 색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백의에 대한 깊은 애착과 백의 에 내재된 강한 지속성의 원리라 하겠다. 그러나 이에 대조되는 강렬한 원색 옷이 공존하고 있으며 녹의홍상, 황의홍상, 녹의청상 등의 옷이 그 예이다. 이는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5색을 기본으로 하여 색채의 독특한 조화를 이룬 것이다. 이러한 원색의 조화는 명절복을 비롯한 의례복, 어린이복, 젊은 여성복, 그리고 가무복 등에 많이 나타나고, 특히 원색들을 질서있게 배열하여 만든 색동에서 원색 조화의 극치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복은 조화에 대한 동경을 보이면서 화려한 배색이라기보다는 백색과 함께 이루는 차분한 색채 조화를 이루는데, 이는 한국 민족의 색채 감각을 대변한다고 하겠으며 한복의 독특한 미적 특징을 살리는 방법이라 하겠다. 현대적인 배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복이나 의식복의로는 전통적인 배색이 이용되고 있음은 한국 민족의 아름다운 풍토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베트남에는 주로 단색 옷을 입었다. 많은 색깔을 동시 사용하는데 한 옷에 다 들어가지 않고 색깔이 따로 따로 만들어 있다. 혹은 한복이 여러 조각으로 만들어 낸 옷이니까 여러 색깔에 들어가면 보는 게 시원하지만 베트남 옷이 길고 몸체에 딱 맞게 하니까 여러 색이 들어가면 미적인 느낌이 좀 그렇다. 또한 베트남 기후와 습식 쌀을 경작하는 일 때문에 화려한 의복에 부합하지 않는 다. 단색과 자연과 가까운 색이 농경농업에 제일 어울리고 위생면으로 너무 깨끗한 느낌을 느껴진다.

6. 결론

위에 말했던 뜻이 생활에 의복은 필요 없을 수 없는 것이며 의복을 통한 나라의 문화 및 풍습, 관념과 성격을 볼 수 있다. 또한 의복을 통한 나라의 풍토와 전통을 볼 수도 있다. 한복과 아오자이를 관찰해보면 한국과 베트남 여성들의 역할을 보인다. 한복의 치마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서 활동복으로 적당하지 못하며 재래식 허리는 입고 벗기에는 편리하니 가슴을 압박하고 흘러내리기 쉽기 때문에 한복을 입는 여성들이

활동적 여성들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이 약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에 나가는 일보다 집에 있는 일과 더 어울릴 것 같다. 한국사회가 남자를 존중한사회이기 때문에 그럴까? 거꾸로 아오자이는 길이 길은데 몸에 딱 맞게 하니 활발하고 능동적인 복으로 적당한다. 아오자이를 입는 베트남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이 강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베트남의 역사를 찾아보면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습식 쌀을 경작하는 역사부터 침략자를 저항역사까지 아무데나 베트남여성의 역할을 필요하다. 또는 예로부터 베트남이 “음”을 존중한 나라가 이었고 지금까지도 전해왔다.

문화기호학으로 색채를 분석을 통한 한국과 베트남 전통색깔의 의미와 기능을 고찰하기로 한다. 나아가 전통 색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을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코드(culture code)'를 탐색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대니얼 챌들러 지음.강인규 옮김.(2006).미디어 기호학 (Semiotics for Beginner).

고등학교 사회-문화.(2003)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이주원.경춘사.(1997).한복구성학

M. Gottdiener and Alexandros Ph. Lagopoulos (1996). The city and the sign - An introduction to Urban Semiotics. New York Guildford, Surrey

Trần Ngọc Thêm (1997). Tìm về bản sắc văn hoá Việt Nam. NXB TP Hồ Chí Minh

Trần Quốc Vượng (2003). Văn hoá Việt Nam - tìm tòi và suy ngẫm. NXB Văn học.

Phan Kế Bính (1990) Việt Nam Phong Tục. NXB Tổng Hợp Đồng Tháp.

논문

김지영.김영인(2007), 한국 기층문화의 전통복식에 나타난 오방색 특성, 한국복식학회

김미경(2001), 삼국시대의상에 나타나는 오방색의 의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김영인.권영걸.이지현.김희연.채정우.성혁진. (2005) 한.중.일 색채의 기호학적 비교 분석과 색채공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색채학회

박명원 (2004) 한국 전통색채 미감의 현대적 구현 - 생활미감 체현 및 교육적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유근향 (2003) 오정색과 오간색의 전통색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백승국 (2007) 소쉬르 기호학 이론과 게임콘텐츠 연구. 인하대학교

유동환 (2003) 음양오행과 복식

서봉하.김민자 (2007) 종교의 영향을 받은 동아시아 복식미의 연구 - 불교,도교,유교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tume